

# “匠人 우대사회 무형유산 활성화”

## ‘무형문화재 보존방법 개발’ 첫 국제정책회의

현재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루마니아, 필리핀, 태국, 프랑스 등 6개국 정도. 이들 나라는 무형문화재를 선정 관리하는데 역사가 크며 예술성과 학술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재관리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무형문화재 보존방법 개발 국제정책회의’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과 독일, 영국 등 유럽 3개국, 세네갈, 모로코 등 아프리카 2개국에서 25명의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무형문화재제도에 관해서는 처음

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특히 각국의 무형문화재보존 제도를 비교하고, 여러 국가들의 무형문화재 보존

## 比·泰 국가예우 각별... 문학·영화분야도 선정 정보교류등 국가차원 보존제도 협력 합의

정책 경험과 지식을 교류, 이를 위한 합리적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국, 일본, 필리핀이 무형문화재와 인간문화재 제도를 비롯한 체계 하에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태국, 루마니아는 인간문화재 제도를 통해 각종 무형문화재 보존

등을 펼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음악, 무용, 놀이 등을 무형문화재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은 문화와 영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직조, 도자기 등 전통공예를 대상으로

‘국가예술품’ 제도를 도입, 고전과 현대의 모든 예술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국가예술품’에게는 황금 기장과 영예 동판이 수여되고, 칭호 부여를 위한 국가 예술가의 날 행사는 왕실이 직접 주관한다.

한명우 기자

한 ‘국가예술품’ 제도와 △문학, 영화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술품’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은 ‘국가예술품’ 선정시 대통령령의 최종심사를 거쳐야 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해당자는 종신연금과 사망시 국장(國葬)을 지르는 등 예우 또한 각별하다.

프랑스는 역사성과 예술성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전문성과 희귀성을 지닌 수공예가에게 ‘예술의 장인’ 칭호를 수여한다. 동료들로부터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도 ‘예술의 장인’이 될 수 있는 특색이 있다.

태국은 그림·조각 등 시각예술 분야와 무용·연주 등 공연예술분야, 시·소설 등 문학분야에 대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선별기준

## 수월관음도 화려한 채색 광물성 안료가 비결

### 용인대, 2년 8개월 분석결과 밝혀

지난 91년 소더비경매를 통해 한국에 반입된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소장자 이학 용인대 이사장)가 화려한 채색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광물성 안료가 아닌 광물성 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이번 안료분석 및 보존처리는 형광X선 및 적외선 분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안료성분 분석 결과 흰색은 납을, 붉은 색은 수은을, 황색은 황토를, 녹색은 성분을 알 수 없는 광물을 이용해 안료를 만들어 채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 주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 신앙’ 세미나에서 박지선씨(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는 지난 11일 공개된 수월관음도에 대한 약 2년 8개월에 걸친 보존수리 결과와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정우택교수(경주대 문화재학)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표현기법’ 주제발표에서 이 수월관음도는 세부의 문양이나 치밀함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존의 14세기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표현기



◇91년 소더비경매를 통해 반입된 14세기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 선암사 대웅전

### “태양같은 자비심 뭉스름 기르시네”

巍巍堂堂萬法王  
(외외대당만법왕)  
三十二相百千光  
(삼십이상백천광)  
莫謂慈容難得見  
(막위자용난득견)  
不離祇園大道場  
(불리기원대도장)

천만하고 있듯 백천 광명으로 중생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생심이 부처님의 백천이나 되는 광명을 보지 못하는 탓일뿐 부처님이 먼곳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높고 높아 당당하신 만법의 왕 32상으로 백천광명을 비취 주시구나  
그 자비로운 모습 뵈옵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기원정사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대도장에 나투시나니

마지막 구절에서 단언하듯 부처님은 기원정사(부처님이 제자들과 머물던 곳이지만 여기서는 이 세상을 뜻한다)를 떠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종자이고 우리 사는 이곳이 성불의 원도임을 말하는 것이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 단신

### 세계 40대 문화재 선정 40인위에 최정호교수 참여

#### 한국불교유물등 10점 추천

불국사 석굴암을 비롯한 불교문화재 4점이 세계의 대표적 문화재 4백점에 선정돼 인터넷을 통해 소개될 전망이다.

## 국보1호 재지정 여부 문체부 11월 여론조사

문화체육부는 올년 말까지 추진 중에 있는 일제강점기문화재 재평가 작업과 관련 국보1호 재지정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11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 결과를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해 국보1호 재지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보조사상연구 ‘불교와 도시문화’ 세미나

### 도시불교 높은 관심 반영 ‘열띤 질의’

지난 19일 보조사상연구원 주최로 법원사에서 열린 ‘불교와 도시문화’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는 발표자·논평자·참석자들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져 도시불교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본지 제97호 13면 기사 참조)

## 이연공고

본인은 10월 9일자 신문을 통하여 하기자들을 본인과 사제의 이연이 다하였음을 공고 한 바 있음.

이후 당사자들의 해명서를 접한바 게재되었던 공고가 마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 조작된 이연공고 인것 처럼 되어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한번 명확히 해두고자 이연을 공고하니 차후로는 재론하지 말것이며 의문이 있을시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 바람

승욱·백산·묵화·남일

불기 2540년 10월 25일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185-1

도현정사 한 옹 도현

Women active in Buddhism

What's New | What's Cool | Handbook | Net Search | Net Directory | Updates

Welcome to Women active in Buddhism -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links and resources on contemporary Buddhist women... (Therms teachers, abbots, yoginis, practitioners), and internet may be found below, as well as projects, organizations, bibliographic and contact information.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세계의 여성불교인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불교사이트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 중에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흔치 않다.

‘세계의 여성불교인’은 영국의 랭카스터대학에서 최근 개설한 사이트로 비구니스님, 학자, 수행인, 사회운동가로서 동시대의 여성을 이르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프로필과 최근 동정을 상세히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인물정보는 세계각국의 총 26명이다. 이 중에서 지난 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필리핀), 틱낀한스님(베트남)의 재자이며 불교환경운동에 적극 활동하고 있는 조안 헤리팩스(미국), 사회비평가로서 인종과 여성 문제에 큰 활동을 보이고 있

는 벨 옥스(영국) 등이 주목할 만 하다. 또 대행스님(한미음선원 원장)이 한국의 비구니스님으로 유력하게 소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는 ‘불교와 여성’이란 메뉴를 통해 각국에서 개최된 여성관련 학술 및 사회운동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비구니로서의 삶’이란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의 자료, 중국이 티벳여성에게 혹독한 인구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눈물과 침묵’, 호주와 불교인이 티벳 여성불자를 돕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활동 등이 상세히 제공되고 있어 불자 네티즌의 시야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http://www.lancs.ac.uk/staff/miltonj/women.htm’을 방문하면 된다. (옥)



◇지난 19일 법원사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 주최 ‘불교와 도시문화’ 세미나에는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 높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天然玉佛 및 佛紀2541年 불자수첩을 보급합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내덕스님들의 높은 법문을 매모하여 오랫동안 간직하고 수행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필요한 불자수첩(다이어리)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불자수첩에는 각종 법회시 필요한 모든 법요집과 불교관련단체들의 연락처와 그날 배운 높은 법문을 기록 할 수 있는 노트 그리고 각 사찰 및 단체들의 안내 사진화보 및 법회안내등 필요한 문안을 수록하여 스님들께서 포교하시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님들의 오랜숙원인 기(氣)가 충만한 천연옥(天然玉)으로 부처님 및 탑을 조성하여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지도편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불자수첩, 옥불·대불, 만불, 삼천불, 천불, 옥탑, 옥등

**佛 教 文 化 保 存 會**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7-3 대륜빌딩 5층  
전화 (02)3476-2581~4 FAX (02)3476-2585

**이 연 공 고**

본인은 10월 9일자 신문을 통하여 하기자들을 본인과 사제의 이연이 다하였음을 공고 한 바 있음.

이후 당사자들의 해명서를 접한바 게재되었던 공고가 마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 조작된 이연공고 인것 처럼 되어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한번 명확히 해두고자 이연을 공고하니 차후로는 재론하지 말것이며 의문이 있을시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 바람

승욱·백산·묵화·남일

불기 2540년 10월 25일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185-1  
도현정사 한 옹 도현